

스포츠 포커스

광주체고 여자체조팀

하루 10시간 맹훈... 전국체전 6연패 해낸다

전국체전 6연패를 향하여...

박은경(3년), 김지현(3년), 정소희(2년), 김해련(2년), 유예슬(1년) 5명의 선수로 구성된 광주체고 체조팀이 내건 올해 목표다.

체육관 열기구는 선수들의 결의에 잔 눈빛과 활력 넘치는 동작에서 정상을 꼽지 기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겨있다.

광주체고 체조팀의 방학 중 훈련은 학기 중 보다 훨씬 강도 높게 실시된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주중 5일은 하루 평균 10시간씩 체력·기술 연마에 주력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반복운동을 통한 체력단련, 그리고 오후엔 2시30분부터 8시까지 고난이도 기술훈련이 이어진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바닥에 주저앉은 선수들에게 최규동 감독의 불호령이 바로 떨어진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돼, 그런 정신상태로는 우승은 꿈도 꾸지마. 일어서!”

최감독의 호통에 체조팀은 다시 일어서 훈련을 시작한다. 이렇듯 반복되는 자율훈련을 이겨내면서 전국체전 6연패의 광주체고 체조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광주체고 체조팀 주역 박은경 선수는 “선배들이 쌓아온 명성을 계승 이어가야죠. 몸은 힘들지만 시상대에 서는 순간들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면서 바로 평균대에 올라선다. 지난해 11월 아시아선수권대회 여자 개인종목별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 선수는 올해 그 여세를 몰아 세계 정상까지도 오르겠다는 각오다. 태릉선수촌에서 나와

지옥훈련 이겨내고 체력·기술 갈고 닦아

국가대표 5명 배출...‘체조메카’ 명성잇기

광주에서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 중인 박 선수는 “집에 온 기분이죠. 친구들과 농담도 하고 너무 편하다”며 해맑은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박 선수에게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예술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 기량은 세계적이지만 매 대회마다 예술성에서 점수를 깎이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다. 박 선수의 예술성 보완은 단지 개인훈련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게 더욱 아쉽다. 최감독은 “은경이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선 체조선수 출신여자 무용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은경이가 2012년 런던올림픽을 향해 최고의 기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술성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체고 여자체조팀의 최근 5년간 전국대회 성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화려하다.

지난해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으로 지난 2004년 대회부터 차지해 온 정상의 자리를 무려 5년이나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자리는 당분간 어느 누구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종별선수권대회도 3년 연속 우승 행진 중이며 전국 체고대항전에서도 5연패로 명실상부한 전국 최강의 팀으로 군림해 오고 있다.



전국체전 6연패를 꿈꾸는 광주체고 여자체조팀이 올해 선전을 위한 파이팅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규동 감독, 박은경, 김지현, 박소희, 김해련, 유예슬 선수와 박철희 코치.



국가대표 박은경 선수가 평균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개인전에서는 박은경 선수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순간마다 국내 체조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우선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국내대회 개인종합 우승을 한번도 놓치지 않고 독차지해오고 있다. 그 중 2007년 전국체전 4관왕에 오른 박 선수는 그 다음해 전국체전서 전관왕(6관왕) 달성을 눈앞에 뒀지만 아쉽게 5관왕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2007년 전국종별선수권과 체고대항전서 결국 6개 부문 정상에 올라 전관왕의 기쁨을 누린다. 박 선수의 상승세는 그 다음해까지도 계속 된다. 2008년 문화관광부장관기 대회서 다시 6관왕을 차지한 박 선수는 종별선수권·체고대항·전국체전까지 석권해 절정의 기량을 과시한다.

이렇듯 단체·개인전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여자체조팀은 최근 5년동안 전국규모 대회서 무려 16회 우승과 약 115개의 메달(금 65개, 은 25개, 동 25개)을 거머쥐는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루고 마침내 ‘조정순 체육상’ 최우수 단체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다.

광주체고 여자체조팀의 이같은 성적의 저력을 과연 무얼까? 바로 선수·코치들의 ‘활수 있다’는 한마음과 학교측의 든든한 지원 등 3박자가 어우러져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감독은 “꾸준한 훈련 외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선수들도 선배들이 이뤄놓은 성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더욱 열심히 뛰는 것 같다”면서 “또한 경험이 많고 응용 동작 지도력이 탁월한 코치들로 한 끽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최 감독의 지도 철학도 조직력 향상에 한 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규모대회 16회 우승

선수·코치·학교 일심동체 ‘막강체조’ 일궈

최 감독은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호통 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선수들이 즐겁게 운동하게끔 코치·감독은 연극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최 감독의 지론이다.

하지만 선수들 훈련에 있어선 너그러운 최 감독도 학교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매우 엄하다. 잘못된 행동이 짚은 선수의 내일을 가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내·외 활동에서 교칙을 어기는 행동은 용서치 않는다는 것이다.

‘천하무적팀’을 이끌어 온 최 감독은 올해 전력에 대해선 순간 머뭇거리며 난감해 하는 표정이다. 작년보다 선수층이 압도적 작년과 같은 성적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 몇몇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 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보인다.

오는 4월 을 시즌을 여는 전국종별선수권 대회가 그들의 첫 시험대. 올해 전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대회서 겨우내 닦았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막강 광주체고 체조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체고 체조팀이 교내 체육관에서 동계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카르페디엠

남구 암립동 암립5거리 인영마트자하
드럼, 일렉, 베이스, 건반, 보컬
1:1 개인지도 학원생 수시모집
(017)618-4620

커피콩

동구 장동 KT앞
커피전문점
대표 고선아
(062)228-2345

사남매회센타

동구 학동 광주천 방림다리근처
꽃게장 백반전문
대표 이병수
(062)222-2799

LAON(라온치과)

남구 주월동 기업은행 봉선지점2층
심미보철, 예방치료, 임플란트,
교정치료, 치아미백, 치주치료
(062)351-2828

(주)세현

서구 내방동 슬로피타운입구
유리, 하이샷시, 일루미늄, 침호,
금속, 각종유리공사 전문업체
(062)374-6488

한울요양보호사교육원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뒤 한울교회1층
요양보호사 교육생 수시모집
대표 전영숙
(062)382-8373

허브다이어트체험관

남구 병림동 삼일로 18번길 새미울금고2층
뱃살쏘목 디아이트 회원수시모집
무료체험선착순모집
(062)655-2228

교촌치킨

북구 두암동 미라보@입구 4거리
교촌오리자발후라이드, 앤디, 교촌원터널개+다리
교촌스틱(다리), 교촌원(날개), 호두후라이드
(061)266-9997

남도둑은지감자탕

서구 학정4거리에서 염주동쪽
행복한 와식공간 단체손님환영
대표 조영민
(062)385-8857

현대슈퍼

남구 백운동 백운우체국 뒷골목
각종생활용품 판매
대표 민일순
(062)671-9322

한우동

동구 학동 남광주4거리 농협옆
축산농기의꿈 산지 가격의 실현
대표 노하연
(062)233-9295

지인상담소

서구 화정동 서초등학교 후문육교 옆
사주, 관상, 택일, 명가 결혼전문
대표 구경란
(062)430-5872

산수우체국

동구 산수2동 산수5거리에서 충장중쪽
국장 이강연
(062)523-1338

소라음악학원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덕산맨션 건너편
유아,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입시반, 취미반
, 바이올린, 비올라, 원생수시모집
(062)523-4673

승리종합상사

북구 운암동 금파공고 정문앞
전동공구 측정공구, 엔진공구, 용접기, 인전용품
디지털보조기, 첫시부속, 정비민관의시설용품
(062)521-4860~1

신탁원

동구 충장로 3가 (구) 조흥은행 옆
중화요리전문점
대표 손세선
(062)223-6849

옛날짜장

북구 양산동 양산초4거리
고급 중화요리 전문점
(면류, 한식류, 셋트메뉴)
(062)571-8334

금강보청기

광산구 월계동 LC타워1층
수인명품디자일보청기전문점 A/S 65세이상 청각
장애인 명함지참기 보청기 적합검사 무료
(062)971-3553

뉴연지곤지

서구 화정동 광주은행 염주지점 맞은편
피부, 체형 노화방지 비만 천연성분의 립포디아
시용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회원관리
(062)373-5284

풍천민물장어

북구 본촌동 본촌초등학교 앞
민물장어 25,000원~35,000원 촉어 15,000원
대표 김경숙
(062)576-6699

현헤어스케치

남구 암립동 사직도서관과 김밥나라사이
펌, 염색, 커트, 척신유형 헤어스타일 전문
커트시 1만원 문화상품권 증정
(062)674-3162